

계속되는 파열음...그래도 바른미래당 안 깨지는 이유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들 간극 점점 벌어져...당장 탈당가능성 낮아



당 정체성과 이념 노선 갈등을 빚어온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 안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을 놓고 파열음을 내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간 간극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창당 때부터 끊임없이 불거져온 노선 갈등이 지속되면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출신 의원들의 복당이나 분당설이 또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장들로 쪼개지는 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노선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탈당을 당장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배경에는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보수야권의 입지나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고려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탈당은 실리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대표가 입당하자마자 당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법친박계 의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당의 권력 정점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다시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이끌고 지진해서 복당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개혁 보수를 추구하는 비박계(연차·비박근혜)에 가깝기 때문에 친정

으로의 복당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에서도 유 전 대표의 '가치'는 예전보다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난해 말 재입당 후 개혁보수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유 전 대표의 입장에서 정치적 노선과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은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한국당 내에서 유 전 대표의 '우군'으로 볼 수 있는 비박계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올해 2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대(全大)에서 친박계가 결집한 것과 달리 비박계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연패(連敗)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진영 전체의 '해체'모여 식 체계편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전 '황교안 체제'를 조기 마감하고 한국당이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경우의 수'로 두고 있다.

황 대표가 당의 수장에 오른 뒤 한국당 지도부는 우파 지지층 결집과 보수 선명성 강화 차원에서 갈수록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도로친박당'으로의 회귀와 함께 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황 대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데다 '우클릭'에만 치우쳐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당의 외연 확장성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어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보수대통합을 추진할 경우 다시 예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하다"며 "차라리 보수가 지금보다 더 망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판을 새로 다시 짜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난 뒤 당 지지율이 30%를 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탄핵 정국 당시처럼 와해되거나 극심한 내분을 재연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초반에 황교안 대표를 '정치신인'으로 부르면서 과연 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 출신이라 정치권이 낯설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시로 필요한 조언을 받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고 잘 받아들인다.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에 정치 공학적 셈법과는 상관없이 탈당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없는 건 아니다. '태생'은 다르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간 화합적 융합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초·재선 의원 7~8명은 매주 한 번씩 비공개 오찬에서 중요한 현안이나 당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의 한 재선 의원은 "현재 탈당이나 한국당으로 복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약 복당을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 있을 때에도 개혁에 한계를 느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건데 앞으로 한국당이 개혁적 보수를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北 '오리무중' 美 '오락가락' 韓 '사면초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정부는 '철수' 진의 파악에 주력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당장의 추가 제재가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남·북·미 중심의 협상 동력이 유지될지 아니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향한 문을 열지 주목된다.



북한은 24일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평 외에는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는 이날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14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북남공동연락사무소에는 관계 발전의 전향적 국면을 비라는 민족의 염원이 응축되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성파'로 선전했다.

북한은 이번 철수 결정이 '상부의 지시'라는 것 이상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미국의 제재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술적 카드인지, 한국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겠다는 신호인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보다 북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서 향후 협상에서 다양한 전술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의 '승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는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남측 시설 보수,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한 협의 등 기존에

진행해오던 것들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대북 메시지 방식과 수위는 여전히 고심만 하는 모습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라며 "북한

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긴 하지만, 백악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도 다른 분위기가 "거러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기류가 혼재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

北 연락사무소 철수 후 한미공조 비난만 '철수' 지렛대로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관측 韓 북한 진의 파악 분주, 평가자제하며 주시 트럼프 "추가제재 철회"...일관성 없는 대응 '백악관 내 기류 달라' 韓 중재 역할 어려워져

은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미국에 허락하는 데 대해 불만이 강하다. 계속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철수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 역할은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사도 소용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해 5월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재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미국 행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강행하고 있어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홍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겠

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내 결이 달라 우리 정부로서도 어느 지점을 공략하고 설득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도 커서 한국 정부가 어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중재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철수 이후 대내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음달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와 태안절(김일성 생일) 등 정치 행사가 연이어 진행되는 만큼 침묵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 밀착하는 '새로운 길'로 진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뉴스스

홍준표 "文정권, 김정은만 바라보며 4대강 보 파괴에 열중"

"국민 심판 받을 것" 경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권은 허구한날 김정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업적과 국가기반시설 파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을 파괴하더니 강은 흘러야 한다고 홍수와 한해를 막고 4대강 정화를 위해 세운 보를 파괴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소양강, 북한강, 남한강도 흘러야 한다. 소양강,

청평댐, 충주댐도 파괴할 거냐"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여론을 조작해 국가기반시설 파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그런 정권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gu